

이정우 <삶, 죽음, 운명: 『차이와 반복』 읽기 3>

8장 두 계열과 영원회귀

◆ 1교시 두 계열과 영원회귀

▲ 『차이와 반복』 2장 5절 강독 - 문학 체계

한번만 더 읽어볼까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분기하고 발산하는 계열들 전체를 통해 유지되는 동시성, 동시간성, 공존성이다. 계열들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면서 매 순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재현 안에서 지나가는 현재들의 관점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는 두 번째 계열은 첫 번째 계열과 유사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그 두 계열을 포괄하는 카오스로 돌아가서 볼 때 그렇고, 그 두 계열을 왕래하는 대상=X로 돌아가서 볼 때 그렇다.

또 그 두 계열을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전조에 비추어 볼 때 그렇고, 그 두 계열 밖으로 넘치는 강요된 운동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그렇다. 즉 계열들은 언제나 분화소를 통해 공존한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그 역설을 목격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매 순간 계속 이어지는 현재나 계열들은 또한 어떤 공존 관계에 있다. 순수 과거나 잠재적 대상에 비추어 보면 상징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환상은 적어도 두 가지의 기저 계열 위에서 구성된다.

생식기 이전의 유아기 계열과 사춘기 이후의 생식기 계열이 그것이다. 주체의 유아론적 무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계열들은 분명 한 현재에서 다른 현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때 물어야 하는 것은 '사후성'의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원초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유아기의 장면은 오로지 그와 유사하고 또 파생적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성인기의 장면 속에서만 효력을 미친다. 거리를 두고 원격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인데, 이렇게 사후적인 효과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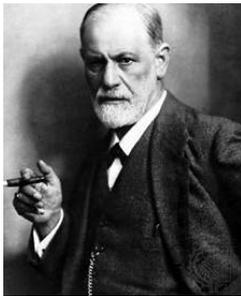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두 계열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명의 문제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문제는 제대로 제기되지 못했다. 아직 두 계열이 어떤 상호 주관적인 무의식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심급이 계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년기 계열과 성인기 계열, 이 두 계열은 하나의 똑같은 주체 안에서 할당되는 것이 아니다. 유년기의 사건은 현실적인 두 계열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전조를 형성하고, 기저의 두 계열은 이 전조를 통해 서로 소통하게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알고 있던 어른들의 계열,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른 어른들, 다른 어린이들과 더불어 속해 있는 성인 계열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이다.

그는 어린 시절 엄마를 무척 사랑했다. 바로 이 사랑에 힘입어 두 성인 계열이 소통하게 되는데, 스완과 오데트가 형성하는 계열, 그리고 어른이 된 주인공과 알베르틴이 형성하는 계열이 바로 그 두 성인계열이다 - 그리고 그 두 계열 안에는 언제나 똑같은 비밀이 숨어 있다.

그 사랑의 포로가 겪는 영원한 전치와 영원한 위장이 바로 그 비밀이며, 이 비밀은 또한 그 계열들이 상호 주관적 무의식 안에서 공존하게 되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어떻게 유년기의 사건은 오로지 사후적으로만 효과를 미치는 것일까? 여기서 이런 물음을 던질 필요는 없다.



그 사건은 바로 이 사후적 지연이다. 하지만 이 지연 자체는 이전과 이후를 공존하게 만드는 시간의 순수 형식이다. 프로이트는 환상이 궁극적 실재인지 모르고 또 계열들 밖으로 넘치는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프로이트

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유년기의 장면이 비현실적이거나 상상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계열이 시간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 위한 경험적 조건이 환상 속에서는 두 계열의 공존으로 대체되고 있다.

환상 속에서는 미래의 어른과 과거의 어른이 공존한다. 환상은 어린아이가 어두운 전조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리고 환상 속에 어떤 근원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계열과 관계하고 있는 어떤 한 계열에 있지 않다.

근원적인 것은 계열들의 차이에 있다. 이는 바로 이 차이들의 계열과 관계를 맺기 때문이고, 그 계열들이 시간 안에서 경험적으로 매 순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분기하고 발산하는 계열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기하고 발산하는 계열들. 그러니까 들뢰즈가 생각하는 그 계열들은 어떤 structure를 형성하는, 딱 단힌 structure를 형성하는 어떤 element의 계열들이 아니고, 그물로 말하면 다 터진 그물이죠. 다 터지고 열린 그런 그물.

그래서 분기하고 발산하는 계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열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막 흩어지는 물론 그거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겠죠.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분기하고 발산하는 계열을 전체를 통해서 유기되는 어떤 동시성. 동시간성. 공존성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간론을 넘어서는 어떤 거죠.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프로이트가 말한, 보통 영어로 디퍼드 액션(deferred action)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사후성. 사후적 지연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계열. 안 나오던가? 나도 기억이 희미한데. 이름이 안 나오던가. 맨 처음 초기에 쓴 게 만나 온가? 하여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의복 가게에 갔는데 자기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쪽 거슬러 가니까 자기가 어릴 적에 옷가게에서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계열이 있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겪은 계열이 이렇게 있고, 어릴 때 겪은 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론으로 하면, 시간이 이렇게 있지. 그러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게 T1이고, 이게 T2고. 근데 이 여자가 이 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느낌이 이상해서 요게 보니까 요기로 그렇게 가서, “아하, 그때 요런 일이 있었구나.” 그 옷가게 주인인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몸을 더듬었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인과관계가 발견되고 의미를 부여받는 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부여받는 거지.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나아트레칼리카. 영어로는 보통 번역하면 deferred ac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계열. 두 계열은 물론 발산하지. 뭐 관계없는 거니깐. 하나는 어릴 때.... 발산함에도 불구하고, 요 두 계열 사이의 존재하는 그 어떤 부여관계.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structure 지.

일상적인 의미의 시간성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반복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반복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일이 반복된 것을 의미를 새삼스럽게 부여받게 돼요. 저런 게 없었으면, 저 과거의 일을 확인 못 했으면 자기가 왜 그런지 결국 몰랐겠지. 그 여자는. 그러니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죠. 두 개 사이에 있는 공론이라는 것도 다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차이와 반복』 2장 5절 강독 - 문학 체계

그다음 한 번만 더 읽어볼까?

만일 무의식의 체계 안에서 계열들이 매 순간 계속되는 순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만일 이 체계에서는 모든 계열들이 공존하고 있다면, 하물며 그 둘 중의 하나는 근원적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파생적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는 원형(原形)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모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계열들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런 한에서 그것들은 시간 안에서 매 순간 계속 이어지기 위한 조건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또 계열들은 차이소들로 파악되고, 그런 한에서 한 계열은 원형의 동일성을 향유하는 반면 다른 계열은 모사의 유사성만을 누리게 되는 상황의 조건에서 벗어나 있다.

게다가 이 두 사태는 동시적으로 성립한다. 발산하는 두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전개될 때, 그 둘 중의 하나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그 둘 사이에 우열이 없음을 말하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그 둘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말은 그 둘 사이의 차이를 통해 언명되고 있으며, 또 오로지 그 차이를 통해서만 언명될 수 있다. 그 두 계열, 그 두 이야기 사이의 내적 차이가 아무리 작다 해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통해 재산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가 다른 것의 모델로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사성과 동일성은 어떤 효과들, 곧 체계 안에서 유일하게 근원적인 위치에 있는 바로 그 차이의 작동방식에서 비롯되는 효과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체계 안에서는 당연히 일차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은 물론 근원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을 각각 지정할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이야말로 유일한 기원이고, 또 이 차이를 통해 차이소들은 모든 유사성에서 벗어나 서로 관계를 맺는 동시에 공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볼 때야 비로소 영원회귀는 이 체계의 바탕 없는 ‘법칙’으로 드러날 것이다.

영원회귀는 동일한 것과 유사한 것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자체가 어떤 순수한 차이의 세계에서 비롯되고 있을 뿐이다. 각각의 계열은 자신을 함축하는 다른 계열들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한 계열이 다른 계열들을 통해 함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이 스스로 그 다른 계열들을 함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자격에서 그 자신이 총체적으로 재산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원회귀는 ‘지정 가능한 기원의 부재’ 이외에는 하등의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만일 영원회귀가 어떤 기원을 지정하고 있다면, 그 기원은 차이다. 차이나는 것들을 서로 관계짓는 가운데 그 차이나는 것(들)을 차이나는 것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차이, 그 것이 기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회귀는 어떤 근원적인 차이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것은 순수하고 종합적인 차이, 곧 (니체가 힘의 의지라고 불렀던) 차이의 즉자 존재에서 비롯되는 귀결이다. 만약 차이가 즉자존재라면, 영원회귀 안의 반복은 차이의 대자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회귀가 같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가? 그 자체로 볼 때 그것은 같음의 영원회귀가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표현, '같은 것, 동일한 것, 유사한 것'이 지닌 의미상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힘의 의지와 영원회귀

결국은 어떻게 근본적인 생성과 그 생성의 와중에서 성립하는 반복을 사유하는가가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텍스트의 기본 문제의식이고, 그거를 이 사람은 니체의 어떤 사상을 자기의 사유체계 속에 흡수함으로써 영원회귀와 힘의 의지를 차이와 반복에서 재생하고 있어요.

281쪽 맨 아랫줄에 “니체가 힘의 의지라고 불렀던 차이의 즉자 존재)” 그러니까 힘의 의지는 결국은 차이 자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힘의 의지는 차이 자체가 되는 거고, 차이 자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ifference가 아니다. difference가 아니라 difference는 어떤 결과고, difference들을 낳는 그 운동, differentiation이죠. 이게 힘의 의지에요.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differentiation으로 보고. 그럼 영원회귀는 뭐니까?

영원회귀. 차이의 대자 존재죠. 영원회귀라는 것은 차이의 대자 존재. 차이의 대자 존재라는 건 뭐니까. 차이의 대자 존재라는 건 바로 반복이죠. repetition. 반복. 그래서 니체의 힘의 의지와 영원회귀는 들뢰즈가 말하는 차이와 반복이죠. 그래서 이 책의 1장 ‘차이’ 자체를 다루고 들어간다면, 이 책의 2장은 반복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식으로 표현을 하면 1장이 힘의 의지를 다룬 거라면, 2장은 영원회귀를 다룬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 『차이와 반복』 2장 5절 강독 - 문학 체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고.

먼저 어떤 경우, 같은 것은 영원회귀에 대해 가정된 어떤 주체를 지칭한다. 이때 이것은 원리의 자격에 있는 일자(一者)의 동일성을 가리킨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오류이다. 니체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만일 돌아오는 것이 일자라면, 그 일자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일자가 다자(多者)에게 자신을 닮도록 규정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자는 처음부터 황폐화되고 있는 이 유사자 안에서 결코 자신의 동일성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니체

반복은 다자의 유사성이 아닌 것처럼 일자의 항구성도 아니다. 영원회귀의 주체는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나는 것이고, 유사한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 주체는 일자가 아니라 다자이고,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이다. 게다가 영원회귀 안의 반복은 어떤 파괴를 함축한다.

영원회귀는 자신의 작동방식을 방해하는 모든 형상들을 파괴한다. 그리고 같은 것, 일자, 동일한 것, 비슷한 것 등과 같은 선행 전제들을 통해 구현되는 재현적 범주들을 파괴한다. 다른 한편 어떤 경우, 같은 것과 유사한 것은 단지 영원회귀에 종속된 체계들의 작동방식에서 비롯되는 어떤 효과에 불과하다.

이때 동일성은 근원적인 차이 위에 필연적으로 투사되어 있거나 차라리 역투사되어 있는 셈이고, 유사성은 발산하는 계열들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 동일성과 이 유사성이 '흉내 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즉 그것들은 차이를 통해 차이소와 차이소를 관계 짓는 체계 안에서 생산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 자체는 시뮬라크르, 허상이다.) 동일한 것, 유사한 것은 영원회귀가 분만하는 어떤 허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오류가 아니라 어떤 가상이다. 이 가상이나 착각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오류의 원천에 놓여 있지만, 그 오류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 동일한 것과 유사한 것은 영원회귀 자체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영원회귀에 앞서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즉 돌아오는 것은 동일한 것도 유사한 것도 아니다. 다만 영원회귀 자체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유일하게 같은 것이자 유일하게 유사한 것이다.

하물며 동일한 것과 유사한 것은, 영원회귀로부터 추성되어 그 원인에 다시 작용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동일한 것은, 차이 짓는 가운데 차이나는 것으로 남아 있는 어떤 것을 통해 언명된다. 영원회귀는 차이나는 것의 같음이고 다자의 일자이며 비유사화 요소의 유사성이다.

영원회귀는 위에서 언급한 가상의 원천이다. 하지만 영원회귀가 그 가상을 분만하고 보존한다면, 이는 오로지 그 가상을 즐겁게 향유하기 위함이고 또 자신의 고유한 시각의 효과인 양 그 안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기 위함이지만, 영원회귀는 결코 그 옆의 오류 속으로 빠져 들지 않는다.

▲ 영접회귀와 영원회귀

영원회귀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우회는 뭐냐하면,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뭔가가 딱 있어서 그놈이 이제 쪽 있다가 뭔가 다시 거꾸로 돌아온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동일성을 전제하는, 동일자를 전제하는 영원회귀는 아니라는 거요. 이거는 사실은 영접회귀예요. 영접회귀. 그러니까 스토아학과 같은. 우주가 짝 펼쳐졌다가 영접의 세월이 지나가면 또다시 쪽 돌아와서 반복된다는.

그리고 이제 니체의 영접회귀하고 영원회귀하고 차이가 난다는 건데. 실제로는 사실 니체 텍스트로 보면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유고로 봐도 있고. 그런데

니체의 성숙한 생각으로 볼 적에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체 자신은 일자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동일성. 자기 동일성을 갖춘 무언가가 있으면 그 존재가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지. 다 자기 자체가 완전하고 충만한데 왜 움직이나, 뭐 하러.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만날 나오는 것 중에 그거 아냐. 신이 완전한 존재인데 뭐 하러 세상을 만들었냐는 거지. 자기가 다 완전한데 왜 자기 바깥의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구속할까. 그것도 일종의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계속되는 차이, 차이내기. differentiation으로 볼 적에는 identity라든가 유사성 같은 것은, identity와 유사성이 있어서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차이의 운동하는 가운데에서 동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미있는 알קות은 말 하는데, 282쪽 맨 아래 보면 “동일성과 유사성이 흥내 낸 것이다.” 그렇죠? 플라톤 식으로 말하면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동위성과 유사성이 있어야 그거를 모델로 해서 그걸 흥내 내서 이런 차이 들이 있다고 하는 게 원래 플라톤적 생각인데,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 도외성과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차이의 생성을 흥내 낸 거라는 거예요. 거칠게.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데아와 시물라크르의 관계가 완전히 전복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걸 나중에 베르그송 얘기할 때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283쪽에 끝나가는 무렵 보면, “영원회귀는 차이 나는 것의 같음이고, 다자의 일자이며 비유사화 요소의 유사성이다.” 이게 우리말도 그렇지만 프랑스어 ‘de’라고 하는 것도 뭐, 뭐 의도되었고 뭐, 뭐로부터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뭐 로부터로 번역하는 게 오해의 요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차이나는 것. differentiation이 먼저 오고, 그것으로부터 같음이 성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멀티플리티, ‘르 멀티플르’가 먼저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르 맹므’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유사와 ‘디스멜리티드’? 에로부터 이제 ‘리젬블런스’가. 디씨미티드로부터 유사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지. 같은 식의 생각하고.